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환거래계약 체결 현황

북한은 은행 국유화 및 신용개혁 실시 등을 통하여 단일은행제도를 구축하였다. 부조서이시이미의외히는 1946년 8월 10일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은행 국유화를 실시한 데 이어, 1946년 10월 29일 '중앙은행에 관한 결정서'에 의거하여 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의 통제 내지 조절에 필요한 지도·감독·검열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1946년 11월 25일 '物品去來 及 現金節用에 관한 決定書'를 통하여 무현금결제¹⁾의 의무화 등에 관한 신용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금융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신용기관을 중앙은행(발권은행), 무역은행(외화거래 전문은행), 특수신용기관(합영은행 등), 협동적 신용기관(협동농

장신용부), 보험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²⁾ 주요 북한금융기관의 조직과 해외진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중앙은행은 194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발권, 통화조절, 결제, 자금공급과 대부, 국가수입금의 수납, 고정재산 등록과 평가, 저금, 인체보험,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³⁾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보험회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수행업무의 특성상 재정성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본점, 총지점, 지점을 두

1) 현금이 아닌 은행에 설치된 계좌로만 이루어지는 결제형태를 말함.

2)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p.799.

3) 재정금융사전, p.939.

고 있다. 본점은 행정조직국, 종합회계국, 종합지령국, 발권국, 통화조절국, 저금보험관리국, 대부자금국, 건설자금국, 노동보수자금국, 고정재산감독국, 무기결제지도국, 검열국, 귀금속관리국, 대외은행사업국, 경비실, 계산기계화처, 업무처, 상사자금처, 재정경리처 등 총 14국 2실 4처로 구성되어 있다. 지점으로는 평양시, 남포시 및 9개 도에 총지점을 두고 있으며, 평양시 14개 지점을 비롯하여 총 30개 지점과 남포시에 총대성자금처를 두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대외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관계로 해외지점이나 해외사무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5월 내각에 의해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1959년 11월에 창설되었다. 조선무역은행은 무역거래 및 비무역거래 관련 결제를 직접 수행하며, 정부간 무역·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간 지불협정의 체결을 담당하고,⁴⁾ 외국은행과 업무거래협정·차관·연불·대출 등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집행하고, 외환시세와 외화이자율을 제정·공포하며,⁵⁾ 비자카드 및 마스터카드 대금결제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선무역은행은 舊

소련·방글라데시·파키스탄·루마니아 등과의 청산협정시 청산결제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남북한간 차관계약인 식량차관계약 및 철도·도로기자재차관을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은행이기도 하다.

조선무역은행은 외환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내각 재정성의 지휘를 받지만 일반적인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내각 무역성의 지도를 받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본점 및 지점과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점은 행정조직국, 1국, 3국, 5국, 6국, 711국, 10국, 외화경제국, 외화관리국, 종합부기국, 대외경제조사국, 검열국, 대외사업처, 전자계산소, 외화교환소, 경리과 등 총 12국 2처 2소 1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점으로는 평양시, 남포시 및 9개 도에 지점을 두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1995년 중국 珠海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로 무역업무를 취급하면서 일부 은행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북한이 홍콩과 영사업무를 개시한 이후 조선무역은행 홍콩사무소 설립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홍콩 금융당국은 이를 인가하지 않고 있다.⁶⁾ 한편, 조선무역은행은 프랑스 중앙은행에 대표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고 1999년까지 駐프랑스 북한 대사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대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프랑스와의 무역규모가 크

4) 북한 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8조.

5) 재정금융사전, p.937. 다만, 라진-선봉 지대의 환율은 조선무역은행 라진지점으로부터 상업금융업무를 인수한 '황금의 삼각주 은행'이 발표하고 있음(Asia-Pacific Institut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OK, *Study of the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Needs in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July 1997, pp.234~237.).

6)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사무소 조사 결과.

지 않음에 따라 1999년 하반기에 철수하였다.⁷⁾ 조선무역은행은 독일의 Deutsche Bank와 Dresdner Bank, 홍콩의 Bank of China와 Nanyang Commercial Bank, 마카오의 Banco Delta Asia SARL, 그리스의 Banca Nazionale del Lavoro, 일본의 Ashikaga Bank와 UFJ Bank, 오스트리아의 Bank Austria Creditanstalt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⁸⁾

3.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조선대성은행은 197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노동당 소속 무역기관들의 대외결제업무, 귀금속거래 및 비자카드 대리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 은행은 노동당 재정경제부가 관할하는 대성경제연합회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대성은행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대표사무소⁹⁾ 및 현지법인인 금별은행(The Golden Star Bank AG)을 두고 있다. 금별은행은 1982년 설립된 북한 유일의 해외은행으로 유럽 내 북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수신업무를 제외한 제한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⁰⁾ 한편, 조선대성은행은 홍콩사무소 및 중국 深圳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대성은행은 국제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해 홍콩의 Nanyang Commercial Bank, 영국의 HSBC Bank, 인도의 Indian Bank, 싱가포르의 United Overseas Bank, 일본의 Ashikaga Bank Ltd.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조선대성은행은 1996년 홍콩 페레그린 투자주식회사와 30:70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이라는 합영은행을 설립한 바 있으나, 현재 동 은행은 페레그린의 파산으로 영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4. 조선합영은행 (Korea Joint Bank)

조선합영은행은 1989년 4월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일본의 조총련합회사업추진위원회가 50:50의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¹¹⁾ 북한 최초의 非국영은행이지만 노동당 경공업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점, 지점, 출장소를 두고 있다.¹²⁾ 본점에 국제업무처, 국내업무처, 자금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흥에 지점을 두고, 강원도, 평성, 신의주, 사리원, 청진에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한편, 조선합영은행의 동경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동경사무소는 설

7) 한국수출입은행 파리주재원 조사 결과.

8) Reed Business Information, *The Bankers' Almanac*, 2003, p.2403. 이하 북한 은행의 환거래 계약 체결현황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 한편 북한은 조선무역은행이 세계 1,000여 개 은행들과 금융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재정금융사전, p.937.).

9) *Bankers' Almanac*, p.2860.

10) 연합뉴스, 2003. 2. 19자 보도(<http://www3.yonhapnews.co.kr>).

11) 조선신보, 2000. 3. 13자 보도.

12) 실제로는 조선통일발전은행의 일개 부서이며, '조선합영은행'은 대외적 명칭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음.

립되지 않았으며, 재일조선합작경제교류협의회에서 연락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³⁾ 조선합영은행은 홍콩의 Nanyang Commercial Bank, 영국의 Lloyds TSB Bank, 러시아의 International Moscow Bank, 중국의 Bank of Communications, 호주의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일본의 Ashikaga Bank, 캐나다의 Toronto-Dominion Bank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5. 창광신용은행 (Changgwang Credit Bank)

창광신용은행은 1983년 12월에 조선통약산은행으로 설립된 후, 조선대성은행에 흡수되었다가 1986년 9월에 독립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창광신용은행은 제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⁴⁾ 1999년 9월 마카오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주로 무역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¹⁵⁾ 한편, 창광신용은행은 1990년대 초에 중국에 지점을 설치하려 했으나 실패하였으며,¹⁶⁾ 이란에서는 은행명칭이 아닌 '창광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무역회사가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¹⁷⁾ 창광신용은행은 중국의 Bank of China, 이집트의 National Bank of Egypt, 스위스의 Lloyds TSB Bank, 러시아의

Bank for Foreign Trade, 인도의 State Bank of India, 일본의 Ashikaga Bank.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6. 고려은행 (Koryo Bank)

고려은행은 1989년 2월 조총련계 기업과의 공동출자로 고려금융합영회사(Koryo Joint Finance Company)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7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노동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주와 남포에 지점을 두고 있다. 고려은행은 중국의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마카오의 Banco Delta Asia SARL, 러시아의 International Moscow Bank, 싱가포르의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çaises-UBAF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7. 조선신용은행 (Credit Bank of Korea)

조선신용은행은 1986년 9월에 국제신용은행(International Credit Bank)으로 설립되었다가 1989년 8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으며, 노동당 중공업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신용은행은 홍콩의 Bank of

13) 한국수출입은행 동경사무소 조사 결과.

14) 동용승, "내각에서 은행 장악", 중앙일보, 2000. 11. 21자 보도.

15)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사무소 조사 결과.

16) 동아일보, 1991. 9. 4자 보도.

17) 한국수출입은행 이란주재원 조사 결과.

China, 영국의 HSBC Bank, 싱가포르의 United Overseas Bank, 일본의 Ashikaga Bank, 스위스의 Société Générale 등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8. 조선금성은행 (Korea Kumsong Bank)

조선금성은행은 인민부력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카오에 지점을 두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마카오지점은 설치되지 않았다. 1998년 무렵 중국 珠海에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주로 경제조사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⁸⁾

9. 화려은행 (華麗銀行)

화려은행은 조선족 개인사업가가 1997년 평양에 설립한 북한 유일의 민간금융기관으로서 북한 내 지점은 없다. 화려은행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北京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지점이 아니라 2001년 2월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⁹⁾

10. 조선광선금융회사 (朝鮮光鮮金融會社)

중국의 단둥일보(丹東日報, 2002. 9. 17자 보도)는 북한의 국가금융기관인 조선광선금융회사가 2002년 9월 16일 중국

丹東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홍콩, 마카오 등에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외국 금융기관 설립허가 심사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은 조선광선금융회사의 사무소 설립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단둥일보에 정정기사를 요구함에 따라, 단둥일보는 2002년 9월 23일 '조선광선금융회사 단둥사무소'를 '조선광선금융회사 소속의 무역자문·연락기구'로 정정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광선금융회사는 당초 영업활동을 위하여 丹東에 진출하였으나, 사무소 개소 사실이 중국인민은행에 포착됨에 따라 현재는 주로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콩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는 '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지닌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 업무는 수출입 대행 및 대금결제 중개업을 주로 하는 일종의 무역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둥일보가 조선광선금융회사를 북한의 국가금융기관으로 보도한 것은, 사무소 개소식에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瀋陽의 북한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점에 비추어 조선광선금융회사를 조선무역은행 자회사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영조】

18)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사무소 조사 결과.

19)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조사 결과.